



# 정교회주보

제2463호

2024.03.10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0> 아토스 성산 수도원 중에서 10번째 서열의 도키아리우 수도원(사진)은 최초로 해안(海岸)에 지어졌으며,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운 수도원 중 하나로 유명하다. 11세기 설립되어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 가브리엘 대천사의 이름으로 봉헌되었다. 9개의 성당이 있고, 도서관에는 545권의 필사본과 5,000여 권의 서적 외에 다양한 비잔틴 문서 등이 보존되어 있다.



## 심판 주일(금육 주일)

성 코드라토스와 동반 순교자들  
(제7조 • 조과 복음 7)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봉)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길이 곧 종착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길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미 그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심각한 문제이든, 아니면 하찮고 일상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꺼안음으로써, 그분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함으로써 그 해결에 이릅니다. 이것은 숙고를 면제해 주지도, 적절한 기술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명료함 안에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실재적이고 강렬한 '형상(Image)'을 세우고, 우리 안에 그 형상을 간직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 심판의 기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요**한은 그의 묵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마태오 25,32-33)

그리스도께서 하실 심판의 기준은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고린토 전 13,13)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사랑의 실천에 따라, 우리의 길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다만 하느님께서서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랑의 실천을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병자와 노인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아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환자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병과 죽음, 슬픔, 고통 등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해코지하는 이들을 용서해야 하고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면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영적 풍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최후의 심판 날에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며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초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오 25,34)

##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홀로코스트 (3)

존 브래디와 소수의 무명인들 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그 뒤로 20년 동안 성녀는 수도원적인 고요와 침묵의 생활에 더하여 때로는 선교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이를테면 3년간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또 다른 3년은 인도에 있는 라자루스 무어 신부의 정교 공동체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당시에 영국 에섹스의 소프로니오스 수도사제(2019년 성인으로 시성)는 그녀에게 영국에 있는 수녀원의 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녀는 사양하였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점점 더 소중히 길러오던 침묵과 고독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여러 봉사 요청들을 거절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1979년, 그녀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곳은 그 뒤 10년간 그녀의 제자들에게 ‘천사들의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하루 중 반나절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며 지냈고, 다시 반나절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만나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녀는 예기나섬에 있는 한 은둔처로 옮겨갔다가 다시 레로스 섬(에게해 남서부에 위치)으로 갔으며, 1991년 그곳에서 ‘메갈로 스키마’(수도자에게 부여되는 최고단계의 영예로운 지위)를 받은 뒤 그 다음해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하였습니다.

그녀의 전기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의 말기 단계에서 급작스러우면서도 완전하게 치유된 일, 백내장 수술 뒤에 안구의 수정체가 재생된 일, 자신의 몸을 떠나서 시나이 산으로 여행한 일 등... 하지만 그녀의 영적

자녀 한 명이 제게 말해준 것처럼, 그녀를 아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그녀의 존재 자체였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해 스며드는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자녀는, “주님께 바치는 성가인 가브릴리아 성녀의 온 삶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 번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홀로코스트가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개방적인 가브릴리아 성녀의 성격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금욕적인 생활과 준엄한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언제나 잘 의식하는 태도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봉사의 삶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헌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1967년, 그녀의 나이 69세에 그리스에 있는 새 예루살렘 수도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한 러시아 복지시설에 있는 이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나이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저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농담을 하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의 근심어린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 소 식

### ■ 참회의 만과

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17일)에는 오후에 참회의 만과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 ■ 이번 주간 금식 안내

이번 주간에는 육류를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축일 달력을 참고하세요.

###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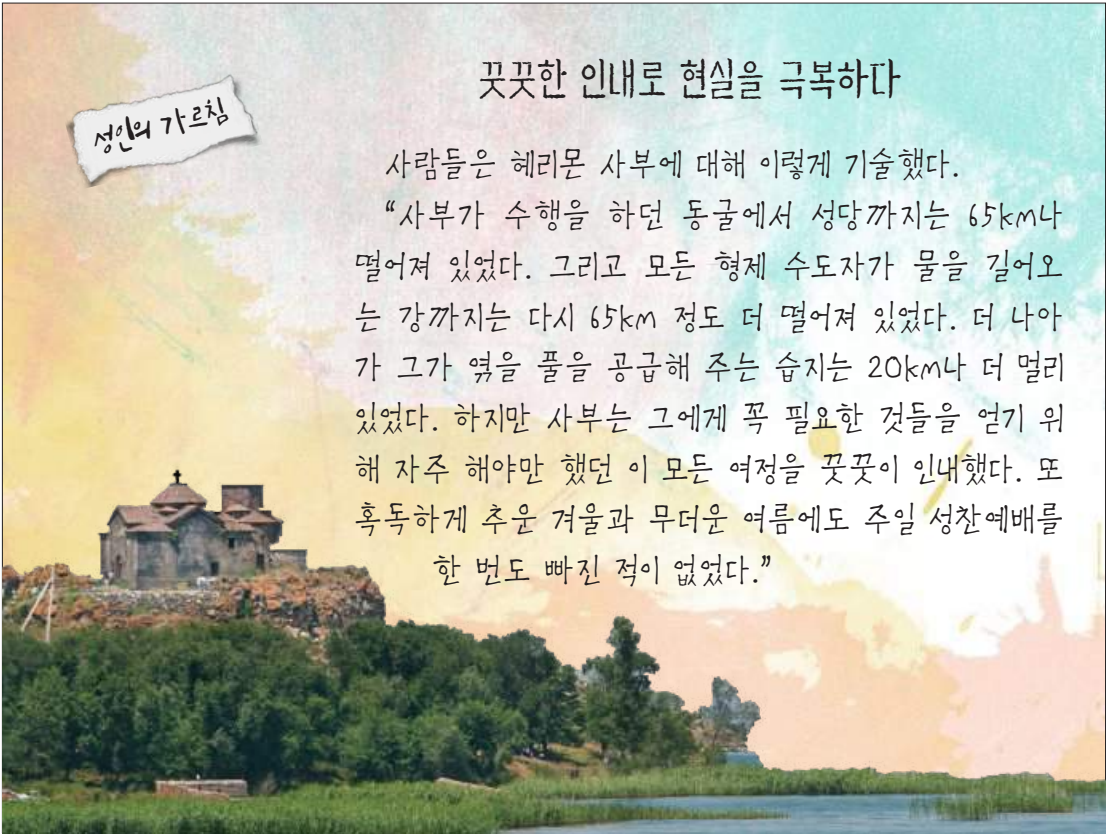
이번주 금요일(15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가평 주변모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 신청하신 분들께는 추후 안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 NCKK 정책협의회 참석

지난 2월 26일-27일, 파주에서 ‘2024 NCK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성인의 가르침

## 꽃꽂이 인내로 현실을 극복하다

사람들은 헤리몬 사부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사부가 수행을 하던 동굴에서 성당까지는 65km나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수도자가 물을 길어오는 강까지는 다시 65km 정도 더 떨어져 있었다. 더 나아가 그가 역을 풀을 공급해 주는 습지는 20km나 더 멀리 있었다. 하지만 사부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자주 해야만 했던 이 모든 여정을 꽃꽂이 인내했다. 또 혹독하게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주일 성찬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